

# 제7강 사회적 성, 몸의 사회학

## ●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(Sex and Gender)

- 남자와 여자의 차이,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가장 큰 차이
-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'남자'와 '여자'란 무엇을 의미하는가?
- 그것은 단지 생물학적, 유전적 차이인가?
- 아니면 여기에 다른 무엇이 함께 작용하는가?
  
-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은 어떻게 다른가?
- 남자, 혹은 여자로 태어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어떤 차이를 의미하는가?
- 오늘날의 현대사회에서 정 정체성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?
- 성에 따른 사회적 지위의 배분은?
- 남자와 여자가 사회에서 가장 조화롭게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은?



# 제7강 사회적 성, 성의 사회학

- 남녀 문제에 대한 생물학적 결정론
- 존재하는 사회마다 남자와 여자의 사회적 지위가 다른 이유는?
- 사회들마다 남자와 여자의 지위 차이를 만들어내는 요인들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자
- 사회적 성: '사회적 성' 개념은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역사, 사회, 문화적 요인에 의해 큰 영향을 받으면서 생물학적 차이와는 별개의 요인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봄.
- 생물학적 성: 생물학적 성에 담긴 편견. 여성과 남성의 능력은 '우열'이 아닌 '차이'임이 밝혀짐

# 제7강 사회적 성, 성의 사회학

- 생물학적 성

신체 구조, 유전적 차이에 따른 성을 의미  
여자와 남자의 해부학적 특성을 바탕으로 성별 구분

예: 염색체, 호르몬, 생식기의 차이 등)

남녀의 성적 특성은 자연적으로 주어진, 불변의 속성으로 이해  
예: 두개골학, 내분비학, 생물학, 심리학 등

성 전환 기술 등의 발달은 전통적인 생물학적 성의 개념에 큰 변화를 일으킴

# 제7강 사회적 성, 성의 사회학

- 사회적 성

- 생물학적인 성(sex)과 구분되는 개념
- 해당 사회의 문화 속에서 남녀에게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사회적 특성과 행동기  
대에 따라 구조화된 성
- 여성성 femininity : 수동적, 소극적, 감성적, 방어적, 부드러움, 섬세함, 따뜻함,  
보살핌 등
- 남성성 masculinity: 능동적, 적극적, 이성적, 공격적, 용감함, 씩씩함, 결단력,  
판단력 등
- 이러한 특성은 사회화 과정, 특히 어린 시절의 학습에 의해 훈련되고 강화됨.

# 제7강 사회적 성, 성의 사회학

- 성의 사회화

성 정체성의 사회화: 가장 강력한 사회화의 기제

- 남아 : 잘생기고, 단단하고, 강인한
- 여아 : 우아하고 아름답고, 매력적인

사회적 성의 학습 : 장난감, 그림책, 텔레비전 프로그램 등

성 역할, 교육, 가족 제도, 지위 형성, 계승 등 강력한 사회화 기제가 삶의 전 과정에서 작용

성차별 없는 자녀 기르기의 어려움

# 제7강 사회적 성, 성의 사회학

- 여자아이 만들기, 남자아이 만들기
- 여자아이들: 소꿉놀이, 인형놀이 등 역할놀이를 많이 함으로써, 엄마, 아빠, 동생, 선생님 등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공감(sympathy, feeling)적 능력이 훈련되는 경향이 있음.

여자아이들의 놀이 특성은 인간관계에서 옳고 그름, 정당성과 부당성과 같은 사회적 정의의 윤리보다 보살핌의 윤리가 중요하게 작용

- 남자아이들: 총싸움, 칼싸움, 딱지치기, 구슬치기 등 이기고 지는 것이 분명하거나 규칙의 수가 많은 놀이들로 주로 구성됨.

이기고 지는 것,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정의와 승부의 윤리가 인간관계에서 중요하게 작용하고 훈련됨.

# 제7강 사회적 성, 성의 사회학

- 현대사회와 양성적 가치의 조화 필요성

현대 사회는 여성성, 남성성의 긍정적인 면 모두 필요

여성, 남성을 떠나서 이 두 가지 특성이 모두 혼련될 필요가 있음

여성성(보살핌의 윤리)과 남성성(정의의 윤리)은 서로 상호보완적일 때 그 빛을 발하는 것

- 성 차이보다 큰 개인 차

남성과 여성간의 차이보다도 남성들 내의 차이, 여성들 내의 차이가 큼

남녀의 차이보다는 개인의 개성차이로 접근하는 다양성의 시각으로 남녀문제를 접근할 필요

어릴 때부터 여자 아이냐, 남자 아이냐를 떠나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오감을 느끼고 표현하는 능력을 길러야 하는 것이 중요



# 제7강 사회적 성, 성의 사회학

- 성은 태어나는가? 만들어지는가?

- 남성과 여성은 태어나는가? 아니면 만들어지는가? 각자의 생각을 자유롭게 얘기해보자.

- 광고, 드라마, 영화 등 대중매체에서 여성을 어떻게 그리는지, 그것을 몇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.

- 몸의 상품화, 특히 여성 몸의 상품화의 끝은 어디일까? 다이어트와 성형 등 몸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얘기해보고, 상품화를 벗어날 수 있는 대안에 대해 생각해보자.

# 제7강 사회적 성, 성의 사회학

- 소비 사회의 등장과 몸

- 신체 지향 사회(somatic society) : 사회적 관심의 초점이 몸의 관리에 맞춰짐.
- 소비주의 문화의 확산 : 개인의 몸은 현대의 복잡한 사회 속에서 개인이 의식적인 투자를 통해 원하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장소. 쾌락과 자기표현의 수단.
- 몸은 '자연적' 대상이 더 이상 아니며 투자하고 변형하고 관리해야 할 일종의 기획(Project)
- 몸에 대한 새로운 억압, 자기 몸의 관리에 소홀한 것은 무능력, 게으름, 열등성의 지표

# 제7강 사회적 성, 성의 사회학

- 몸과 정체성의 왜곡

- 우리가 입고 태어난 성별화된 몸으로 인하여 서로 다른 의미와 경험과 기회를 차별적으로 배분하는 사회구조 속에서 살아감

- 몸 자체는 자연적 운명적으로 태어나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며, 사회문화적으로 부여된 의미에 따라, 주체의 의식적인 관리에 따라 그 경계가 유동적인 범주

- 몸은 정체성의 일차적인 근거이지만 모든 자원은 아님. 같은 여자의 몸을 가졌다고 똑같은 정체성을 갖는 것은 아님.

# 제7강 사회적 성, 성의 사회학

- 근대적 성과 몸의 인식 변화
- 17세기 말 : 남성의 몸이 표준, 여자는 열등
- 18세기 이후 : 과학의 발달로 남성과 여성의 범주가 구체화됨. 여성의 육체적 연약함에 대한 주장들은 건강/질병 모델로 구체화. 여성은 출산과 양육에 적합.
- 19세기 : 여성의 몸은 사회적으로 규정되는 출산 능력, 생식능력에 의해 규정됨
- 1970-80년대 : 몸은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특정 시대, 특정 장소의 문화적, 사회적 요소들에 의해 구성된 것으로 보는 관점.
- 푸코(M. Foucault) : 몸을 통해 어떻게 권력이 행사되는지에 주목. 몸에 작용하는 규율권력(disciplinary power)은 개인의 몸과 전체 인구집단의 몸을 길들이고 이를 통해 개인들을 스스로 자기 몸을 감시하고 다스리는 주체로 만들었다고 봄.



**펠론네메비의 프그시**



미켈란젤로의 피에타

# 제7강 사회적 성, 성의 사회학

- 현대사회와 성의 사회적 구성
- 여성의 성은 오랫동안 단순한 쾌락이 아니었음
- 1860년 클로로포름, 1880년대 항생제의 발명으로 출산의 고통과 죽음의 위협에서 조금 벗어남
- 1960년대 피임약의 보급, 낙태의 합법화 등으로 여성의 성이 쾌락과 연관됨

# 제7강 사회적 성, 성의 사회학

- 몸과 미시 권력
- 몸은 단순히 그 위에 권력이 작동하는 대상이 아니라, 시선, 걸음걸이, 앉는 자세 등 그 자체가 위계관계를 나타내는 기호(sign): 낮은 지위에 있는 남성의 자세는 여성에게 권장되는 자세와 유사
- 여자다운 몸가짐에 대한 혹독한 훈육이 어릴 때부터 강요됨. 여성들이 하면 품위 없는 자세는 남성들 사이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나타내는 표시로 이용되는 자세들
- 현대미술에서 정면을 향한 도전적 시선의 여성누드는 페미니즘으로 해석됨. 여성의 몸은 남성에게 의해 감상되고 전유되지만 남성에게 도전해서는 안됨





마네 : 풀밭 위의 점심

# 제7강 사회적 성, 성의 사회학

- 몸의 자기 결정
- 몸은 수동적인 대상이 아니라 주체에 의해 체험된 몸(lived body)이며, 따라서 여성의 몸은 여성의 자기결정이 이루어지는 적극적인 장소, 지배와 저항이 맞물리는 사회적 갈등의 장
- 기존의 담론과 표상을 뒤집는 문화적 실천을 통해 이러한 의미망을 교란하고, 가부장적 틀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봄
- 예) 마돈나 : 몸에 대한 성적 표상 자체를 갖고 놀아버린 점에서 여성주의의 영웅.

# 제7강 사회적 성, 성의 사회학

- 몸의 소비, 몸의 숭배 사회 넘어서기
- 몸짱, 얼짱 사회
  - 다이어트, 성형중독, 거식증 등
  - 한국사회에서 미적 이상이 날씬한 몸매로 변하는 과정은 '서구화'과정과 일치함
  - 80년대 이후 여성의 교육수준과 사회참여가 높아지면서 여성의 업무능력과 상관없는 외모 가꾸기, 몸 가꾸기 확산
  - 외모도 능력이자 자본 : 각종 미인대회 성행
- 외모강박증의 현주소
  - 미혼여성중 81.8%가 현재 체중에 불만족
  - 여대생의 절반 이상이 미용성형,또는 고려 중
  - '섹시하고 날씬한 몸'으로 획일화

# 제7강 사회적 성, 성의 사회학

- 몸 가꾸기 사회
- 여성의 삶과 자아 정체감에서 외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커서, 여성의 열등한 지위를 고착화시킴.
- 자신의 몸을 관리하면서 겪는 물리적, 심리적 고통이 크다 : 자기비하, 혐오
- 다이어트와 성형은 젊은 여성의 아름답고 날씬한 몸을 이상화. 여성의 사회문화적 생명을 단축시킴.
- 여성의 외모관리, 몸 관리가 철저히 남성적 시선과 권력에 의해 규정됨
- 몸의 자본화, 서열화는 남성에게도 억압적으로 작용

# 제7강 사회적 성, 성의 사회학

- 변화를 강요 받는 남자의 몸

- 몸에 대한 과도한 관심과 투자는 남성에게도 영향
- 국가적 임무를 수행하는 근육질의 영웅적 육체에서 '꽃미남'으로
- '메트로 섹슈얼' : '꽃미남'의 곱상한 외모에 남성미를 갖춘, 남성적 강인함과 여성성이 공존하는 새로운 남성상을 의미

예) 베컴, 안정환, 권상우, 비

- 섹시하고 카리스마 넘치지만 여성을 지배하기보다는 여성에게 소비되는 섹슈얼리티의 대상으로 존재. 여성만큼 외모에 투자하는 남성

# 제7강 사회적 성, 성의 사회학

- 성의 상품화
- 성폭력과 성적 자기결정권
  -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서의 성폭력
  - 한국사회의 성폭력 현실
- 성매매와 성의 상품화
  - 자본주의와 성의 상품화
  - 한국사회의 성매매 현실
  - 성매매는 사라질 것인가?
  - 글로벌 섹스 산업
  - 확장되는 성상품화와 성적 자기결정권

# 제7강 사회적 성, 성의 사회학

- 생각해 보자
- 다이어트와 성형 등 몸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나누어 보고, 남성과 여성의 몸가꾸기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얘기해보자.
- 광고, 드라마, 영화 등 대중매체에서 여성의 몸을 어떻게 그리는지, 그것을 몇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.
- 자본주의 사회에서 몸의 상품화, 특히 여성 몸의 상품화의 끝은 어디일까? 몸송배사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보자